12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종합 metr⊕

# '오죽 답답했으면'… 美 하원 찾아 개성공단 재개 읍소

####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 방미

美 기업 북한자원 활용 도움될 것 세계기업 참여로 비핵화 견인 기대 재가동으로 北 시장경제 확산을

"개성공단은 지리적으로 남한이 아닌 북한의 개성시에 위치해 있으며,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이 결합된 남북 경제협력 모델이자군사적 평화공존지대입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밝은 미래를 열수 있도록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어주시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11일(현지시간) 오후 4시께, 미국 워 싱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설명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설명회 모두발언을 통해 미하원의원들 앞에서 한국의 개성공단 재개 필요성에 대해 호소했다. 김 회장은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성공단 위치가 그려진 한 반도 지도도 지참했다.

김 회장이 창업한 제이에스티나(옛로만손)는2004년 당시시범단지입주기업으로 지정돼 폐쇄되기 전까지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해왔다. 김 회장은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도 역임했다.

이날 설명회 자리에는 김 회장 외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왼쪽 세번째부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앤디킴 뉴저지 하원의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브래드셔먼 미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장등도함께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북정책을 수립·집행한 인물로개성공단에 근무하며 대북협상을 담당했다. 문재인 정부들어선 2017년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을 맡으며 개성공단 재개 등을 위한 준비에 힘쓰고 있다.

김이사장은 청년들과 함께 쓴 책 '우리, 함께 살 수 있으까? 평화로 가는 북맹 탈출 안내서'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당시 북측이 공단용지로제공한 곳은 북측의 서부전선주력군부대가 있던 군사지역이었어요. 6만명규모의 군병력이 주둔해있었죠. 그런데 남측 기업의 물류 시간이나 철도·도로 건설입지 등을 고려해 이 부대들을 송악산 뒤쪽으로 약 10~15㎞ 물리

고 그 자리에 개성공단을 만든 겁니다. 바꾸어 생각해보세요. 우리라면 파주 지역 최전선부대를 물리고 남북 공동의 공단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라며 개성 공단의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회장 역시 이날 모두발언에서 "무 엇보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기업의 북한자원 활용과 투자촉진에 도움 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은 세계 각국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북 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 진입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국민들의 63%가 개성공단 재가 동이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또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이 핵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과 개 성공단 제재 면제가 미국의 대북제재강 화법상 제재조치를 위반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임금 직불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도 마련을 위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임금전용 우려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경제의 유통과 한반도 평화조성 노력은 대북제재강화법상제재조치 위반이 아닌 제재면제 조건에해당한다"는 점도 분명히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제재보다 재 가동'을 통해 북한으로 더 많은 시장경 제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브래드 셔면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은 "대북제재 면제에 대한 기본 전제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제재 해제 일환으로 개성 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좀더 완화된 비핵화가 현 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근로자에 게 지불된 임금이 정부쪽으로 상당히 유용됐다는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한국 대표단이 제시해 준 임금체계에 대한 자료는 좀 더 살펴보겠다. 아울러 북한 에 대한 제재강화가 북한의 중국의존 도를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아울러 "꼭 제재만이 중요한 것이 아 니라 다른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내 용 등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개 성공단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앤디 킴 뉴저지 하원의원은 "대북제 재가 해제돼 개성공단이 재개되길 기 대하며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로 개선 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 서 "(이 자리가)첫번째 대화일 뿐 후속 으로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언급 했다

한편 이번 미 하원 설명회 참석차 꾸려진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에는 중기중앙회 부회장인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경기개성공단사업조합이사장인이 희건 나인 대표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대한상의 '북유럽 성공 분석 보고서' "혁신·성장·선순환 달성 북유럽 복지 본받아야"

대한민국이 북유럽 혁신 사례를 본받 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 브(SGI)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북유럽이 OECD 국가 중 성 장과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 두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면서 고용률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 면서도, 사회복지지출 규모가 GDP 대 비 25~29%에 달하는 데다가 소득 불 평등도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설 명이다.

SGI는 북유럽이 성공한 배경을 혁신 과 성장, 복지 선순환을 달성했기 때문 이라고 평가했다. 혁신을 통해 성장 동 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일하 는 복지를 기반으로 복지 개혁에 앞장 섰다고 풀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SGI 김천구 연구위 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 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 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 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 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 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 을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 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기 년 / 시 기자 ink

## 아이돌봄 플랫폼 '자란다', 31억 투자 유치로 날아오른다

출시 이 후 77% 정기 사용률 유지 축적 데이터·노하우로 더 큰 성장을

아이 돌봄 및 교육 매칭 플랫폼 '자란 다'가 3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2 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자란다는 시리즈 A 라운드를 마무리했다. 우리은행, 대교인 베스트먼트, 디캠프, 하나은행이 신규투자자로 참여했으며, 카카오벤처스와 500스타트업은 후속 투자했다.

자란다는 4~13세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문 돌봄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4만 건 이상의 매칭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생님을 선별하고, 아동 상담 전문가 '자란다 플래너'가 방문 과정과 만족도를 맞춤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자란다를 사용하는



이 글놈 및 교육 매성 글짓놈, 자신나 가 이각 원의 구시글 규지였다고 [2월

아이 비중이 높다. 2017년 5월 서비스 출시 이후 평균 77%의 정기 사용률을 유지하며 매달 약 5000시간의 선생님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서정 자란다 대표는 "지난 5월부터 는 공예, 요리, 체육 등 아이의 연령과 관심사에 기반한 지역별 원 데이 클래스도 오픈했다" 며"앞으로

자란다는 아이의 성 장에따라재 카카오벤처스의정신아대표는 "그동안 자란다가 축적한 매칭 데이터와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더욱 확장성 높은 교육 플랫폼으로 도약하리라 기대한 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9월에 이어 후속 투자한

능을 '배움'으로 발전시키는 서비스로 더욱 확장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유통社-中企, '대한민국 마케팅페어'서 함께 성장을

중소벤처기업부, 13~15일 킨텍스서 中企 217개 기업 참가해 제품력 뽐내

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마케팅 한마당이 펼쳐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사흘간 경기일산킨텍스에서 '2019년 대한민국 마케팅 페어'가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217개 기업이 327개 부스를 마련해 제품력을 뽐낸다.

특히 특별부대행사로 열리는 '히든 스타상품' 특별생방송에선 'TOP 5'에 뽑힌 ▲헬스앤바이오 Carepod 스테인 레스가습기 ▲오투에어 청풍씽씽 ▲톰스 쓰봉 ▲삼선교 멀티큐브 살균기 ▲ 에이치에프인터내셔널 오렐리안 풍기

인견 속옷세트 등이 선보인다. 이들 상품은 7대 TV홈쇼핑에서 판매수수료 없이 소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첫날 열릴 개막식에선 중기부와 TV 홈쇼핑협회, T-커머스협회, GS·CJ·현대·롯데·NS·홈앤·공영 등 국내 7대 TV홈쇼핑이 상생마케팅 비전 선포식을 함께 연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유통사 와 중소기업이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의지를 다지고 더 나 아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행사기간열리는전시회는중소기 업 우수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중소 기업 명품관, 상생협력관, 디지털가전 관, 생활용품관, 뷰티관 등 총 9개 전시 관으로 꾸며져 누구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감송호기자